



박범신의 '고산자' 김별아의 '열애' 신경숙의 '리진' 이경자의 '빨래터' 김탁환의 '해초'

역사속 인물 소설로 불러내다

역사 속 인물들이 소설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견 작가들이 역사에서 소외받았거나 배일에 싸인 인물들을 속속 주인공으로 불러내고 있다.

지도 만든 김정호·아나키스트 박열·화가 박수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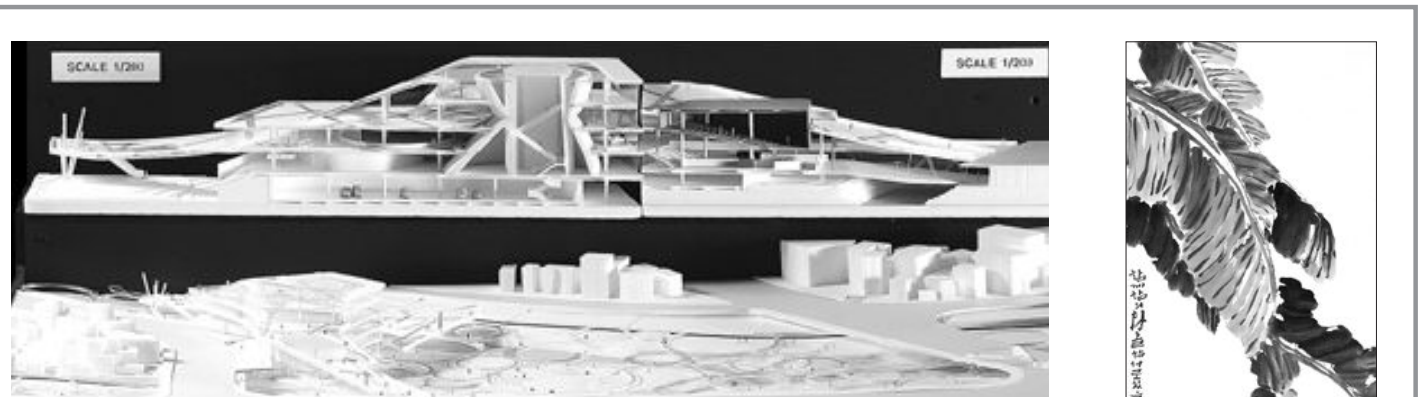
박범신·김별아 씨 등 인기작가들 속속 출간

조여름 서점가 강타... 베스트셀러 진입

우선 박범신의 첫 역사소설의 주인공이 된 고산자 김정호 '영원한 청년작가'로 불리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범신은 조선시대 최고의 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생애를 복원한 '고산자(문학동네 펴냄)'를 냈다. 작자의 말을 빌리면 '역사가 유기한' 실존 인물 김정호에 소설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통찰력을 보태 완성한 주인공이다. 소설 '고산자'는 김정호가 왜 지도제작에 '미치게' 됐는지, 대동여지도에 왜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는지, 인간 김정호가 사랑하는 여인은 없었는지 등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물음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답하고자 한다. 김정호라고 하면 길에서 길로 떠돌며 발품을 팔아 지도를 제작한 인물로 인식되곤 하지만 작가 박범신은 김정호를 인문학과 과학 예술의 3박자를 갖춘 인물로 읽어내고 있다.

'미실'의 작가 김별아의 최근작 '열애' (문학의 문학 펴냄)에도 시선을 끄는 인물이 등장한다. 작가는 비련의 사랑 주인공으로 일본 천황가 폭탄 투척 사건의 주역인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박열(1902~1974)과 그를 사랑한 일본인 연인 가네코 후미코(1903~1926)를 불러냈다. '미실', '논개', '백범' 등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써온 김별아는 '열애'를 통해 국경과 사상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사랑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김별아를 히트 작가로 등극시킨 '미실'은 드라마 '선덕여왕'의 인기와 함께 다시 베스트셀러 순위로 진입하는 등 인기를 모으는 중이다. '선덕여왕' 또한 역사소설의 주요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드라마의 원작이 된 류은경이 쓴 '선덕여왕'(MBC프로덕션 펴냄)은 현재 2권까지 나왔으며 한소진의

한국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 박수근도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다. '혼자 노는 아침'을 쓴 중견작가 이경자는 장편소설 '빨래터'(문이당 펴냄)를 통해 그의 대표작 '빨래터' 논란을 매개로 파란만장한 박수근의 삶을 복원했다. 이외에도 김탁환이 7년간의 준비 끝에 출간했던 장편소설 '해초'(민음사 펴냄)의 주인공 해초(704~787)와 신경숙의 베스트셀러 소설 '리진'(문학동네 펴냄)의 실제 모델이었던 조선시대 궁중 무희 리진도 주목 받았다. '추사' '다산' 등 역사소설을 써온 소설가 한승원은 "역사적 인물을 다룬 소설은 역사의 시공을 뛰어넘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며 "실력 있는 작가들이 많은 작품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더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축 = 박지영, 이상현, 조찬민 '물위를 건다'

제45회 전남도 미술대전

한국화 노진숙·서양화 양나희씨 대상

부문별 대상작

전남도와 전남예총(회장 하철경)은 지난 19일 호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제45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심사를 갖고 한국화 등 9개 부문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작은 모두 1천731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상 7점, 우수상 6점, 특선 278점 등 972점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입상자 명단 광주일보 홈페이지 게재)

한국화 부문에서는 노진숙씨의 '대지의 꿈', 서양화 부문에서는 양나희씨의 '기호적 구성'이 대상을 받았다. 그밖의 분야별 대상작은 다음과 같다. ▲서예=박정철 '이백 선생 시', ▲사군자=유금례 '어울림' ▲공예=김종균 '정 1', ▲조각=홍원철 '아버지' ▲건축=박지영·이상현·조찬민 '물위를 건다'. 서각과 시각디자인 부문은 대상작을 내지 못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예=김종균 '정 1'



한국화=노진숙 '대지의 꿈'



서예=박정철 '이백선생의 시'



서양화=양나희 '기호적 구성'

먹의 번짐, 은은한 멋으로 정광희전... 24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창호지에 달빛이 스며들듯, 먹의 은은한 번짐을 통해 환상적인 미학을 선보이고 있는 정광희씨가 오는 24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정씨는 한국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추상 세계를 열고 있는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서 정씨는 '아는 것 잊어버리기'를 주제로 서예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수묵 작품을 선보인다. 두꺼운 장지를 일정하게 접은 뒤 오래된 책에서 떼어낸 종이를 붙여 독특한 질감을 살렸고, 그 위에 굵직한 붓질로 추상적 이미지를 만들

어냈다. 사물의 형태를 단순화시킨 대신 여백을 강조했고, 자연스러운 먹의 번짐이 은은한 멋을 내는 작품이다. 미술평론가 윤진섭(호남대 교수)씨는 "그의 먹은 거의 난반사에 가까운 미묘한 빛을 머금고 있다"면서 "세월에 마모되거나 이끼가 건 성벽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고 평했다. 호남대에서 서예를 전공한 그는 중앙대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한 뒤 4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또 '컬러 아트 페어'와 함께 독일 양대 미술전으로 꼽히는 '제 6회 아트 칼스루에'에서 호평을 받



'아는 것 잊어버리기'

았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법원부동산경매정보

공인중개사/경매분석사 : 정 미 경
TEL : 062-351-0664
H·P : 010-7628-0664

국민법률경매(주) 서구청옆 광주세무사타운

구	소재지	면적(m ²)	잔액	회차
전남	순천시	1172/528	1950만	1회
	곡성군	14529/4418	11억	11회
	곡성군	4812/1485	1억9200만	1회
	곡성군	542/194	1억	1회
	곡성군	222/183	1억	1회
	곡성군	1729/622	7800만	5회
	곡성군	3000/207	6800만	4회
	곡성군	242/725	1억	1회
	곡성군	282/1195	6800만	6회
	곡성군	291/45	2800만	2회
나주	나주시	881/289	3200만	3회
	나주시	292/74	4900만	3회
	나주시	279/84	1억	1회
	나주시	182/40	6800만	1회
	나주시	2119/340	1억	1회
	나주시	44/19	2800만	1회
	나주시	180/304	1억	1회
	나주시	815/138	7억	5회
	나주시	1181/241	1억	1회
	나주시	1907/307	3800만	1회
담양	담양군	2582/267	2800만	1회
	담양군	2475/750	1억	1회
	담양군	1442/508	1억	1회
	담양군	2322/702	8800만	1회
	담양군	1779/538	2억	4회
	담양군	882/223	6800만	1회
	담양군	2920/623	2억	2회
	담양군	582/178	2800만	1회
	담양군	3871/175	4900만	1회
	담양군	1122/609	2800만	1회
광주	광주광역시	1800/244	3800만	1회
	광주광역시	1222/298	1억2200만	1회
	광주광역시	1882/513	2800만	1회
	광주광역시	1243/278	3800만	1회
	광주광역시	2427/237	2800만	1회
	광주광역시	2870/207	6800만	1회
	광주광역시	2478/148	2800만	1회
	광주광역시	471/14	1억	1회
	광주광역시	2517/781	2800만	1회
	광주광역시	3111/1548	3800만	1회
목포	목포시	1020/320	2800만	1회
	목포시	6381/1824	2800만	1회
	목포시	1184/238	2800만	1회
	목포시	1282/288	1억	1회
	목포시	1822/600	2800만	1회
	목포시	2004/808	3800만	1회
	목포시	1922/528	1억	1회
	목포시	2281/880	2800만	1회
	목포시	2027/807	3800만	1회
	목포시	2482/227	1억	1회
진안	진안군	1815/488	1억	1회
	진안군	1484/484	1억	1회
	진안군	2196/248	1억	1회
	진안군	782/211	2800만	1회
	진안군	3224/214	2800만	1회
	진안군	2924/277	2800만	1회
	진안군	1107/234	2800만	1회
	진안군	4375/323	2800만	1회
	진안군	4824/1388	4800만	1회
	진안군	1812/224	2800만	1회
보성	보성군	3200/880	2800만	1회
	보성군	3587/1385	2800만	1회
	보성군	2514/780	1억	1회
	보성군	3408/1383	1억	1회
	보성군	17722/278	2800만	1회
	보성군	1812/278	1억	1회
	보성군	1812/278	1억	1회
	보성군	1812/278	1억	1회
	보성군	1812/278	1억	1회
	보성군	1812/278	1억	1회